

# 캘리포니아 주지사 Newsom : 보호하기 위해 금융 감시자를 만드는 법안에 서명 CFPB를 모델로 한 소비자



소비자 보고서, 금융 산업 감독 강화를 위해 캘리포니아를 칭찬

SACRAMENTO, CA – Consumer Reports는 오늘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며 악의적인 금융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 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. Newsom이 서명 한 법안 (AB 1864)은 캘리포니아의 기존 금융 규제 기관을 더 광범위한 권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더 많은 자원을 갖춘보다 강력한 감시자로 바꿀 것입니다.

캘리포니아는 소비자 금융 보호국 (CFPB)이 연방 차원에서 집행 노력을 축소하고 소비자를 이용하여 적발 된 기업에 대한 벌금을 줄이면서 주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CR과 소비자 및 소기업 그룹 연합은 현재의 경제 위기 동안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직면하고있는 취약한 연방 감독과 재정 착취 위험이 높아진 제안을 뒷받침했습니다.

소비자 보고서의 수석 정책 고문이자 서부 주 입법 관리자 인 Suzanne Martindale은 “경제 붕괴로 큰 타격을 입은 가족은 그늘진 대출 기관 및 기타 부도덕 한 금융 회사의 주요 목표입니다. "캘리포니아의 재정 감시자는 약탈적인 재정 관행으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주의 모델이되어야 합니다."

Martindale은 “CFPB가 실종 된 시기에 캘리포니아가 금융 사기 및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무시키고 있습니다. 다른 어떤 주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포괄적인 권한과 자원을 금융 규제 기관에 부여하지 않았습니다.”

AB 1864에 따라 비즈니스 감독 부서가 확대되고 재정 보호 및 혁신 부서 (DFPI)로 이름이 변경됩니다. 새로운 감시 장치는 CFPB를 모델로하여 주 일반 기금의 자금이 아닌 과거 집행 조치에서 얻은 사업 감독 부의 기존 예비 기금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.

DFPI는 채권 추심 자, 신용보고 기관 및 소위 "핀 테크"회사와 같이 현재 감독 대상이 아닌 중요 부문을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등 금융 서비스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. 금융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받는 소비자들의 구제를 확보하고 남용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수십 명의 신입 직원으로 강화 될 것입니다.